

중외공원 문화벨트의 변신 꽃길 걸으며 예술작품 감상

지난 1980년대 조성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은 놀이 시설, 산책로와 함께 운암제와 용봉제 등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누구나 한번쯤은 가봤을 어린이대공원은 벌파카, 회전목마, 바이킹 등 다양한 탈 것들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위기가 온 건 1990년대 초 북구 우치동에 종합놀이시설인 우치공원(옛 패밀러랜드)이 생기고 컴퓨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줄었다. 중외공원이 버티는 힘은 문화였다. 공원 내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과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관 등 문화시설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꾸준히 어린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는 시립미술관 주변이 대상지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팔각정 일대 편백나무숲길에는 음향시설과 예술작품, 흔들의자를 설치해 문화향유 기회와 휴식처를 제공한다. 호남고속도로 인근, 공원 내부길 등에는 채송화, 봉선화, 코스모스 등 경감어린 우리꽃을 파종한다. 약 1만㎡ 규모로, 4월까지 파종을 마치면 5월부터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기존 야생화 군락지도 보강한다. 현재 중외공원에는 원추리 등 야생화 18종이 약 4000㎡ 면적에 퍼져있다. 미술관은 3000만원을 투입, 야생화를 추가 식재하고 관리한다.



3억 투입 연내 플라워 가든 조성
문예회관~미술관~박물관
편하게 즐기도록 동선 개선
통합 홈페이지·다람쥐 순환버스 운행

최근 광주시를 비롯한 중외공원 문화예술기관들이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회의'를 열고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이 추진한 문화 이벤트,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입구부터 미술관 본관까지 진입로 300m 구간에는 도로변에 꽃울타리를 조성한다. 홍가시, 조팝나무, 야생화 등을 심어 삭막한 분위기를 바꾼다. 2단계 사업은 민속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전시관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민속박물관과 비엔날레를 잇는 60m 구간엔 폭 5m 덩굴터널을 5월부터 조성한다. 8월이 되면 여주, 색동호박,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터널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같은 기간 문화예술회관 중앙·원형계단에도 덩굴터널을 만든다. 총 200m 길이로 추진된다. 민속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결하는 길(120m)에는 느티나무와 꽃을 추가로 심어 동네 마실길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화예술벨트 활성화 사업은 '플라워 가든' 조성으로 첫발을 댄다. 소나무, 잔디 등 초목색만 가득했던 공원 일대를 음악과 미술, 형형색색 꽃으로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나뉘어 11월까지 예산 3억1500만원을 투입, 총길이 3.2km, 면적 2만3860㎡에 예술작품과 클래식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마련하고 꽃길, 화단으로 장식한다.

시립미술관 인근에 설치된 길이 52m, 높이 4m 시멘트 옹벽도 꽃으로 치장한다. 나팔꽃, 아이비 등 덩굴식물을 심어 4개월 꽃향기로 물들인다. 한편 중외공원 문화기관들은 꽃길 조성을 시작으로 공원에 다람쥐 순환버스 운행, 통합 홍보물 제작, 통합 홈페이지·SNS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인줄 알았는데 그림이네



이목을 작 '공(空)606'

무안 오승우미술관 6월15일까지 '재현을 넘어-극사실의 세계와 만나다'展

세밀한 표현으로 실물을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극사실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무안군오승우미술관이 '재현을 넘어-극사실의 세계와 만나다'전을 6월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극사실주작가 17명이 참여해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1980년대 1세대 작가부터 최근에 활동하는 작가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극사실미술사를 한번에 볼 수 있다.



유용상 작 '선택받은 사람'

전시는 크게 1세대 작품을 다룬 1부 '실존을 향해'와 최근작들을 볼 수 있는 2부 '시물라르크의 세계'로 구성됐다. 1980년대에 전개됐던 극사실회화는 자동차, 공사판, 소파, 영화 포스터 등 일상적인 소재를 그렸다. 1부에 출품된 고영훈 작가의 '코트'는 누런 배경 속 공중에 떠 있는 검은색 코트를 등장시켰다. 자연스럽게 늘어진 벨트, 펼쳐어는 듯한 아랫단이 인상적이다. '복제된 레디메이드-뭉툰'(조상현)은 실제 아연판에 화색을 칠한 후 녹슨 자국, 뜯겨진 포스터, '금일휴업' 쪽지 등을 그려놓

았다. 눈을 가까이 대고 보기 전까진 실제 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2부에 전시된 '경계'(안성규)는 화면 90%를 차지하는 노을빛 하늘 밑으로 안개에 싸인 도시를 표현했다. 밀도 높은 묘사로 도시를 그리며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처럼 화폭을 구성했다. 이목을 작가의 '공(空)606'에서는 빛을

가득 받은 먹음직스런 사과가 등장한다. 실제 함판에 나무결을 그려놓아 사과 껍질을 묘사한 후 수십개 사과를 입체감있게 그렸다. 황순일 작가가 출품한 'Take Several'은 한입 베어먹은 포도가 소재다. 잘린 단면으로 보이는 투명한 과육과 정밀한 빛 묘사는 사진인줄 그림인지 착각하게 만든다. 문의 061-450-5481. /김용희기자 kimyh@

'프라도 미술관, 두번째 이야기'

'인문지행' 문화예술행사 20일 광주극장 영화의집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 문화예술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프라도 미술관, 두번째 이야기-결자에 취하다'다. 함께 만나는 작품은 라파엘로의 '추기경', '마리아 로사', 티치아노의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레코의 '목동들의 경배', '가슴에 손을 올린 기사', 피데르 브뤼헬의 '죽음의 승리' 등이다. 심옥숙 박사(인문지행 대표)가 기획 진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한다. 함께 감상후 누구나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문의 010-



엘 그레코 작 '가슴에 손을 올린 기사'

2656-9208/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오월가족음악회

21일~4월 8일 참가자 모집

'제2회 전국 오월가족음악회'가 오는 5월 5일 오후 7시 수안지구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오월음악이 주관하는 오월가족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행사다. 주최측은 본선 경연을 앞두고 오는 참가팀 점수를 받는다.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2일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 1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2인 이상 가족과 이웃, 마을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금상 100만원(1팀), 은상 50만원(1팀), 동상 30만원(1팀)이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오월장작가요제 홈페이지(www.maymusicfesta.net). 문의 062-682-0518.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